

WEBVTT

00:00:27.625 --> 00:00:29.207

-안녕하십니까? 철수입니다.

00:00:29.366 --> 00:00:30.929

-안녕하십니까? 존슨입니다.

00:00:30.996 --> 00:00:31.614

-철수와.

00:00:31.714 --> 00:00:32.656

-존슨의.

00:00:32.759 --> 00:00:35.056

(함께) 취업노트.

00:00:37.727 --> 00:00:39.609

-존슨 씨, 드디어 나왔습니다.

00:00:39.657 --> 00:00:40.574

바로 자소서인데요.

00:00:40.674 --> 00:00:42.881

-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죠.

00:00:42.981 --> 00:00:45.800

-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
인생을 한번 돌아보는

00:00:45.926 --> 00:00:49.821

기회가 될 수 있는 자소서고
대신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야.

00:00:49.972 --> 00:00:52.804

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뭘 했지?

00:00:52.904 --> 00:00:55.480

-그런 식의 자괴감도 좀 오죠.

00:00:55.642 --> 00:00:57.444

-뭔가 자소서나 이력서에
쓸 게 없는 거야.

00:00:57.614 --> 00:00:58.630

-쓸 게 없어.

00:00:58.790 --> 00:01:02.706

그래서 쓸 게 없어도 여러분,
어쨌든 최대한 짜내서

00:01:02.806 --> 00:01:04.092

만들어내야 하고요.

00:01:04.192 --> 00:01:07.376

자소서의 요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
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

00:01:07.476 --> 00:01:12.417

성장과정, 성격의 장단점, 지원동기,

입사 후 포부 이 정도죠.

00:01:12.517 --> 00:01:14.977

옛날에는 레퍼런스
삼을 만한 게 없으니까

00:01:15.077 --> 00:01:19.531

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
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거를

00:01:19.631 --> 00:01:22.807

인자하신 아버지와
엄격하신 어머니 밑에서

00:01:22.907 --> 00:01:26.632

이렇게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서
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.

00:01:26.732 --> 00:01:30.446

옛날에는 이거 완전 그냥
있으면 무조건 아웃이었어.

00:01:30.546 --> 00:01:34.142

그런데 이게 제가 또 인턴들
자소서를 받아 보잖아요.

00:01:34.242 --> 00:01:37.671

그런데 이게 못 본 지가
한 5, 6년이 됐잖아.

00:01:37.828 --> 00:01:42.407

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
인턴 자소서에 이게 쓰여 있더라고.

00:01:42.507 --> 00:01:46.521

인자하신 아버지와,
이걸 보니까 또 신선하더라고.

00:01:46.621 --> 00:01:47.421

-눈에 띄겠네.

00:01:47.581 --> 00:01:52.700

-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,
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01:52.800 --> 00:01:55.592

-아니, 그런데 최근 어쨌든
트렌드가 성장과정에서

00:01:55.692 --> 00:01:58.069

여러분의 성장과정을 일대기로
나타내는 게 아니라

00:01:58.169 --> 00:02:00.320

성장과정 중에서
이 기업에 지원할 때

00:02:00.420 --> 00:02:03.218

필요한 역량을 서너 개 정도
경험을 뽑아내는 거야.

00:02:03.318 --> 00:02:04.616

중학교 때 뭘 했고.

00:02:04.716 --> 00:02:08.593

-저 같은 경우는
한두 가지 경험에 집중해서

00:02:08.693 --> 00:02:10.368

그거 가지고 풀어내는 게
나을 것 같아요.

00:02:10.504 --> 00:02:14.383

중학교,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
굳이 시간 순서대로

00:02:14.547 --> 00:02:17.455

늘어놓을 필요는 없고
정말 자기가 이것만큼은

00:02:17.624 --> 00:02:19.075

딱 하나 말하고 싶다
그런 거 있으면

00:02:19.205 --> 00:02:20.455

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고.

00:02:20.571 --> 00:02:24.364

-그렇죠, 두 번째로
성격의 장단점이네요.

00:02:24.464 --> 00:02:27.658

-장점 같은 경우는 쓰기 쉬워요.

00:02:27.758 --> 00:02:32.833

장점은 정말 누가 듣든
장점은 하나 있을 거 아니야.

00:02:32.933 --> 00:02:35.788

장점은 하나 딱 잡고 쓰면 되는데

00:02:35.888 --> 00:02:39.087

단점은 자기가 진짜
단점을 써야 할지

00:02:39.187 --> 00:02:44.515

아니면 이걸 조금 바꿔서 써야 할지
이렇게 많이 고민이 될 텐데.

00:02:44.615 --> 00:02:45.294

-그게 있잖아.

00:02:45.445 --> 00:02:48.831

단점인 듯 단점 아닌
단점 같은 단점.

00:02:48.931 --> 00:02:52.827

이걸 쓰는 게 바로 성격 장단점의
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.

00:02:52.927 --> 00:02:54.546

-그렇죠, 여기서 저희가

꿀팁을 드리자면

00:02:54.694 --> 00:02:56.871
장점에너무를 붙이면 됩니다.

00:02:56.909 --> 00:02:58.319
-맞아, 단점이 되는 거야.

00:02:58.419 --> 00:03:01.536
-저는 가끔 너무 창의적입니다.

00:03:01.636 --> 00:03:05.268
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
노력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.

00:03:05.410 --> 00:03:08.750
저는 가끔 너무 꼼꼼합니다.

00:03:08.850 --> 00:03:10.956
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어요.

00:03:11.056 --> 00:03:13.433
저는 가끔 너무 사람을 좋아합니다.

00:03:13.533 --> 00:03:17.009
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사람을
조금 덜 좋아하게 됐어요.

00:03:17.666 --> 00:03:20.380
-그리고 장단점에서 마지막으로
중요한 게 뭐냐면

00:03:20.555 --> 00:03:22.901
항상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
맞게 써야 합니다.

00:03:23.001 --> 00:03:25.834
예를 들어 단점인데
나는 너무 소극적이다,

00:03:25.934 --> 00:03:27.083
이러면서 영업직에 지원한다.

00:03:27.173 --> 00:03:28.212
이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.

00:03:28.312 --> 00:03:31.842
-장점을 쓰는데 영업직 지원하는데
정말 나는 꼼꼼하다,

00:03:31.991 --> 00:03:35.315
매사에 있어서 되게 세심하고
이렇다 그러면

00:03:35.460 --> 00:03:37.519
영업직이랑 안 어울린다고
생각할 수 있잖아.

00:03:37.619 --> 00:03:40.233
-직무에 맞춰서 장단점을
대충 풀어서 쓰면

00:03:40.333 --> 00:03:43.103
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.

00:03:43.203 --> 00:03:45.846
다음으로는 지원동기가 나오네요.

00:03:45.946 --> 00:03:47.146
-지원동기 어렵죠.

00:03:47.246 --> 00:03:48.908
-저는 정말 이거
어려웠던 것 같아.

00:03:49.008 --> 00:03:53.119
왜냐하면 성격의 장단점이나
성장과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

00:03:53.272 --> 00:03:54.909
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
쓰면 되는 거야.

00:03:55.009 --> 00:03:58.476
그런데 지원동기에는 필수적으로
기업이나 자기 직무에 대한

00:03:58.589 --> 00:03:59.941
이야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해.

00:03:59.995 --> 00:04:04.180
-그러니까 성장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
같은 거는 복붙하기 쉬워요.

00:04:04.280 --> 00:04:07.152
자기가 기업이 달라진다고
성장과정이 달라져?

00:04:07.274 --> 00:04:08.298
아니면 성격이 달라져?

00:04:08.422 --> 00:04:13.224
그런데 지원동기는 정말 그 회사에
맞춰서 써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

00:04:13.324 --> 00:04:14.646
그게 좀 힘들죠.

00:04:14.746 --> 00:04:18.724
-맞아, 그렇기 때문에 지원동기를
쓸 때는 저는 그랬어요.

00:04:18.824 --> 00:04:21.793
항상 쓰기 전에
포털 사이트에서 최신 뉴스를

00:04:21.893 --> 00:04:23.487
그 기업으로 검색해 보는 거야.

00:04:23.587 --> 00:04:24.226
-좋은 팁입니다.

00:04:24.340 --> 00:04:27.397

-그러면 최근에 그 기업이
추진했던 사업이나

00:04:27.497 --> 00:04:31.407

아니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
있는 계획들이 나온단 말이야.

00:04:31.507 --> 00:04:35.087

그런 거로 지원동기를 써서
자기한테 이런 게 영감이 됐다.

00:04:35.187 --> 00:04:36.982

이렇게 쓰면 좋게
풀어쓸 수 있는 거죠.

00:04:37.099 --> 00:04:40.068

-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
최신 이슈여야 한다는 거야.

00:04:40.230 --> 00:04:43.177

그냥 그 회사 인재 채용
사이트에 들어가서

00:04:43.333 --> 00:04:45.250

그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좋아한다.

00:04:45.350 --> 00:04:48.542

그런 거 가지고 쓰면 이거는
별로 변별력이 없는 거야.

00:04:48.642 --> 00:04:50.293

다 그냥 뻔한 소리.

00:04:50.393 --> 00:04:51.748

회사 인재상은 다 똑같아.

00:04:51.914 --> 00:04:53.956

거의 다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

00:04:54.117 --> 00:04:57.789

자기가 변별력을 낼 수
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.

00:04:57.889 --> 00:04:58.689

-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.

00:04:58.841 --> 00:05:01.416

예전에 TV를 보는데
정주영 회장님이

00:05:01.573 --> 00:05:03.512

소를 끌고 가는 걸
보면서 이런 거.

00:05:03.681 --> 00:05:04.969

-소가 되고 싶었습니다.

00:05:05.069 --> 00:05:08.419

-아무튼 최신 이슈와
본인의 이야기를 잘 풀어 쓰면

00:05:08.564 --> 00:05:10.139
정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다.

00:05:10.239 --> 00:05:13.620
-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
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

00:05:13.720 --> 00:05:17.727
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
최신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

00:05:17.884 --> 00:05:19.093
정말 알아야 하잖아요.

00:05:19.193 --> 00:05:20.813
-다음으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.

00:05:20.913 --> 00:05:24.574
입사 후 포부가 저는 이것도
두 번째로 어려웠던 게 뭐냐면

00:05:24.674 --> 00:05:27.223
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게
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

00:05:27.323 --> 00:05:29.014
포부를 밝히려는 거야.

00:05:29.569 --> 00:05:32.644
두 번째는 입사 후 포부랑
10년 후 내 모습.

00:05:32.744 --> 00:05:35.241
유사한 항목을 제시하는
기업이 있어.

00:05:35.341 --> 00:05:37.817
-이거를 같이 쓰라고 하면
정말 열 받는 거죠.

00:05:37.917 --> 00:05:40.075
그리고 각각 800자야.

00:05:40.175 --> 00:05:41.002
이게 말이 돼?

00:05:41.161 --> 00:05:44.110
입사 후 포부랑 10년 후
내 모습이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.

00:05:44.284 --> 00:05:49.472
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좀 줄어드는
추세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

00:05:49.572 --> 00:05:52.553
-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쓸 때는
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써야 해.

00:05:53.124 --> 00:05:54.034
물론 어려울 거야.

00:05:54.154 --> 00:05:57.790

어렵지만 너무 먼 미래에서
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.

00:05:57.926 --> 00:05:59.462

-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.

00:05:59.562 --> 00:06:02.650

나는 여기서 계속
창의성을 유지하면서

00:06:02.750 --> 00:06:07.272

이 업계의 역군으로
남아 있을 것이다.

00:06:07.372 --> 00:06:10.508

이런 정말 하나 마나 한
표현 쓰지 말고.

00:06:10.613 --> 00:06:11.295

-그런 거 있잖아.

00:06:11.395 --> 00:06:13.600

모두에게 존경받은 팀장이 되겠다.

00:06:13.700 --> 00:06:16.135

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쓰면
입사 후 포부가 아니란 말이야.

00:06:16.283 --> 00:06:20.230

제 생각에는 아까 뉴스를
활용하라 그랬잖아.

00:06:20.330 --> 00:06:23.729

그 기업의 최신 뉴스를 통해서
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

00:06:23.829 --> 00:06:25.590

내가 어떤 역할을 맡겠다.

00:06:25.690 --> 00:06:27.222

이렇게 쓰면 100점이야.

00:06:27.322 --> 00:06:30.111

-그런 것도 그렇고 이건 사실
좀 허황된 거 써도 돼요.

00:06:30.211 --> 00:06:33.141

허황된 거 써도 사실 신입사원이
알면 얼마나 알겠어.

00:06:33.290 --> 00:06:34.086

-그러니까 몰라.

00:06:34.186 --> 00:06:37.959

-그러니까 여기서 말도
안 되는 거라도 자기는 들어가면

00:06:38.059 --> 00:06:40.909

내가 이런 사업을 벌이겠고

거기서 책임자가 되어서

00:06:41.009 --> 00:06:43.678
중국 지사장으로 나가 있겠다.

00:06:43.837 --> 00:06:46.559
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거를
딱딱 짚어줘야지

00:06:46.722 --> 00:06:47.912
이거 딱 보고 오~ 하지.

00:06:48.023 --> 00:06:49.719
-그러니까 고민의 흔적이 보이잖아.

00:06:49.843 --> 00:06:52.022
-자기가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
내면 되는 거죠.

00:06:52.190 --> 00:06:53.635
-그렇지, 그런 거 괜찮지.

00:06:53.735 --> 00:06:58.542
-최소한의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게
분명히 필요한 거고요.

00:06:58.642 --> 00:07:01.885
-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
내용으로 들어가서 인사담당자들이

00:07:01.994 --> 00:07:06.017
자소서에 쓰면 굉장히 싫어하는
표현이 몇 개 있다더라고.

00:07:06.117 --> 00:07:08.382
그런 것들을 존슨 씨가
한번 짚어볼까요?

00:07:08.536 --> 00:07:09.990
-이런 게 있네요.

00:07:10.090 --> 00:07:11.423
급한 성격.

00:07:12.247 --> 00:07:13.939
철수 씨가 그렇죠.

00:07:14.039 --> 00:07:15.445
운이 좋은.

00:07:15.545 --> 00:07:16.584
철수 씨가 그렇죠.

00:07:16.684 --> 00:07:18.206
타고난.

00:07:18.306 --> 00:07:21.200
철수 씨가 정말 타고나게
성격이 안 좋잖아.

00:07:21.353 --> 00:07:23.702

-이거 제 자소서 아닌가요?

00:07:23.802 --> 00:07:24.305

-그러게요.

00:07:24.436 --> 00:07:30.487

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랄까,
급한 성격 같은 건 당연히 그렇고

00:07:30.603 --> 00:07:34.911

운이 좋다는 것도 자기가
성과를 낸 게 아니라

00:07:35.011 --> 00:07:38.667

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
그런 뉘앙스가.

00:07:38.767 --> 00:07:41.564

-반대로 자소서에 들어가면
인사담당자들이 좋아하는

00:07:41.664 --> 00:07:42.858

그런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?

00:07:42.958 --> 00:07:44.883

-제일 좋아하는 표현으로
뽑힌 게 이거래요.

00:07:44.983 --> 00:07:48.924

저는 이거 보고 당연하네라는
생각이 들었는데 책임감 있는.

00:07:49.024 --> 00:07:51.840

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거
굉장히 중요하거든요.

00:07:51.997 --> 00:07:53.947

기업에서도 굉장히
중요하게 생각하고.

00:07:54.047 --> 00:07:55.982

그리고 두 번째로 뽑힌 게 성실한.

00:07:56.082 --> 00:07:58.607

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
보면 될 것 같아요.

00:07:59.808 --> 00:08:03.251

자기의 책임감을
드러낼 수 있는 일화 같은 게

00:08:03.351 --> 00:08:06.711

자소서에 들어가면
팬찮게 보이는 거죠.

00:08:06.811 --> 00:08:08.137

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?

00:08:08.286 --> 00:08:10.994

-그 외에도 성실한,
긍정적인, 적극적인.

00:08:11.094 --> 00:08:14.166

이런 뻔한 표현인데
사실 어쨌든 자소서에는

00:08:14.282 --> 00:08:16.553

이런 긍정적인 표현이
많이 들어가야 하니까.

00:08:16.653 --> 00:08:19.261

아무튼 굉장히 기본적인 팁을
가르쳐줬고 존슨 씨는.

00:08:19.395 --> 00:08:21.470

저 같은 경우에는
조금 실용적인 건데

00:08:21.624 --> 00:08:23.572

가장 필요한 게 바로 DB입니다.

00:08:23.672 --> 00:08:25.588

자소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해.

00:08:25.688 --> 00:08:29.503

사실 복붙을 굉장히
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

00:08:29.666 --> 00:08:31.112

복붙은 이제 필수입니다.

00:08:31.212 --> 00:08:34.323

-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
없는 부분이 있어요.

00:08:34.423 --> 00:08:38.192

모든 기업에 다 새로
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.

00:08:38.292 --> 00:08:41.159

-아니, 기업은 바뀌겠지만 여러분의
경험과 성향은 바뀌지 않아.

00:08:41.326 --> 00:08:44.599

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최소한도로
필요한 게 바로 DB가 필요하다.

00:08:44.765 --> 00:08:45.982

복붙의 기본이 되니까.

00:08:46.116 --> 00:08:48.891

아무튼 취준생 여러분께서 이렇게
자소서 이야기 들으면서

00:08:48.998 --> 00:08:52.315

정말 가장 큰 꿈이 면접을
보는 거다, 이런 분들도 있어.

00:08:52.449 --> 00:08:55.615

그만큼 정말 자소서가 중요하고
신경 많이 쓰는 건데.

00:08:55.778 --> 00:08:59.514

-여러분, 자소서가 가장
통과하기 힘든 전형입니다.

00:08:59.637 --> 00:09:00.861

-가장 많이 떨어뜨리니까.

00:09:00.961 --> 00:09:06.062

-그러니까 여러분, 자소서 떨어진다고
해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

00:09:06.162 --> 00:09:11.654

저희도 한 100개 쓰면
면접까지 올라갔던 게 6개?

00:09:11.822 --> 00:09:12.783

-10개 내외였겠죠.

00:09:12.908 --> 00:09:16.902

-이 정도니까 여러분,
그 정도 확률 생각하고

00:09:17.002 --> 00:09:20.791

최대한 많이 쓰는 게
정말 중요합니다.

00:09:20.891 --> 00:09:23.867

-아무튼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
자소서에 관한 팁이

00:09:24.037 --> 00:09:28.205

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전국에
있는 취준생 여러분, 모두.

00:09:28.305 --> 00:09:30.054

(함께) 건승하십시오.